

‘먹 산수’ 대가 아산 조방원 화백 별세



# “좋은 그림을 완성하는 건 인격” 먹 하나로 동양의 신비 담았다

지난 9일 88세의 일기를 끝으로 눈을 감은 아산 조방원 화백은 ‘먹 산수’의 대가였다.

고인은 작품의 현란한 색채를 버리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추구한 작가로 평생 먹색 하나로 다양한 자연의 색과 형상을 담아냈다.

조방원 화백이 색을 멀리하고 먹에 흠뻑 빠진 이유는 남종사상의 주축을 이루는 무위자연에 심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먹의 농담에서 온갖 색을 찾아내고, 발묵(먹물이 번지는 것)으로 자연을 표현하면서 먹 하나로 동양의 신비를 담았다.

명장 이동백과 임방울의 소리, 최승희의 무용 등이 아산을 화가의 길로 이끌었다. 10대 시절 그는 판소리와 춤을 통해 자신의 가슴 속 예술혼을 알아차렸고, 그때부터 좋은 그림들을 본떠 그리면서 절자탁마했다.

19세가 되어서는 남농을 찾아가 사사했다. 10년 동안 남종화의 전통을 익힌 그는 제2회 국전에서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제 4·5·6·7회 국전에서 연이어 특선을 하면서 중앙 화단에 발을 디뎠다.

고인은 평소 “남농이 강조한 것은 답습이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개성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인은 동양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호남의 예술적 자양을 흡수하며 남도문화의 독자성을 확립한 윤림산방의 맥을 이어왔다. 아산의 초기 산수는 윤림산방의 전통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후 아산은 일필휘지의 역동감이 넘치는 필선과 무한한 상상력을 촉발하는 여백의 미에 심취한다. 아산의 산수는 변화를 거듭하며 세계와 불화하는 산수에서 보고 생각하는 산수로 넘어간다.

노년에도 “이제 그림다운 그림을 그려야겠다”며 지리산 자락에 있는 곡성 연화마을로 들어가 화업을 이어왔다.

아산은 평생 형태나, 구도, 색감의 변화인 ‘사형’(寫形)보다 작품에 담긴 의미인 ‘사의’(寫意)를 중시하며, 그림의 깊이를 추구해 온 화가다. 고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산들이 우주의 축을 이루는 뼈대처럼 버티는 것도, 또 작품 속에 산사나 민가를 배치할 때도 풍수를 따진 것도 사경보다 사의를 중시한 자신의 철학을 여실히 작품에 녹여내는 행위들이었다.



명천(鳴泉)

고인은 생전 “중요한 것은 예쁘나, 안 예쁘나가 아니라 얼마나 기운이 생동하느냐”며 “가장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수묵으로 옮기면 그것이 곧 목선”이라고 강조해왔다.

인간을 완성하는 인격도야는 좋은 그림의 원천이라는 지론을 평생 외치면서 후학들에게도 강조했다. 스스로 바르지 않고는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 호를 아산(雅山)이라 했다. 이 같은 올곧은 정신은 그를 사회 참여로 이끌기도 했다. 80년 5·18민주항쟁을 겪은 그는 자신의 그림에 낙관을 찍을 때 아산(雅山)의 ‘雅’를 병어리 아(峒)로 바꿔 사용했다. 당시 작품들은 먹고 휘에서도 큰 변화가 느껴진다. 강한 먹색을 통해 암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했으며, 강한 필선으로 생명에의 의지를 담았다.

또 그동안 등그스름하던 산세들은 송곳을 연상시키듯 뾰족하게 표현, 민중과 작가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평생 전통의 뿌리와 민족 정신을 중요시해온 아산은 국악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1968년 사비를 들여 남도국악원을 설립해 무상양도했고, 임방울의 국악테이프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자신을 화단으로 이끈 것이 우리 소리였다는 생각에서다. 아산은 임방울의 수궁가와 적벽가를 들으며 붓을 놀리는 것을 즐기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초등 1·2·5·6학년	64 황지은(봉산초6) 71 박 흥(진제초5) 72 이연지(목포하동초6) 75 임유진(순천왕지초5) 86 윤은지(광양중앙초6)
초등 3·4학년	

◇초등부 1,2학년	〈심사위원〉 구복희(전남과대학대 교수) 김신영(목포대 교수) 황미경(순천대 교수) 이훈진(세한대 교수) 함정욱(남부대 교수)
▲최고상	
16 윤나경(경양초2)	
▲금상	
11 양운유(경양초2)	
17 양준혁(일봉초2)	
22 정도영(경양초2)	
▲은상	
8 손희원(화개초2)	
19 이담해(살리시오초2)	
24 서운서(조봉초2)	
▲동상	
4 김유민(고실초2)	
5 문서연(목포석현초1)	
12 이은빈(구례중앙초2)	
13 서승현(목포임성초2)	
14 김소울(광주송원초2)	
15 유현아(화개초2)	
18 황시후(블로초2)	

◇초등부 5,6학년	〈심사위원〉 구복희(전남과대학대 교수) 김신영(목포대 교수) 황미경(순천대 교수) 이훈진(세한대 교수) 함정욱(남부대 교수)
▲최고상	
9 김하숨(선창초4)	
▲금상	
22 김래형(광주송원초4)	
28 이솔비(목포항도초3)	
41 장서운(목포항도초4)	
51 김재민(광양마동초4)	
56 박가현(목포영산초4)	
71 한유림(목련초4)	
▲은상	
4 박시윤(만호초4)	
11 박희령(유안초3)	
13 황인경(대지초4)	
15 이유림(노화중앙초4)	
18 이은재(순천인안초4)	
19 윤경진(신암초4)	
53 김도경(송정초4)	
66 한지훈(정암초4)	
68 임희례(일곡초4)	
91 김가인(광양제철남초4)	
97 이인교(태봉초3)	
98 김수지(고실초4)	
▲동상	
6 백서연(목포신흥초4)	
7 최우인(정암초4)	
10 장세영(광주중앙초4)	
16 한시연(만호초4)	
25 구예서(구례북초3)	
33 고려경(운리초4)	
39 김희수(본촌초4)	
44 김유희(봉산초4)	
47 황서윤(정암초4)	
59 박예림(050905생)	
62 김수빈(블로초3)	
63 정해진(송정초4)	
65 정남경(블로초4)	
81 황현지(블로초4)	
82 신예지(진남초3)	
84 조윤진(서광초4)	
87 염호정(광주삼육초4)	
88 이윤솔(태봉초3)	
92 김준혁(광주남초4)	
95 김한서(광주효덕초3)	
100 한다은(군산신흥초4)	
104 박정현(백일초4)	

## 눈부시게 검은 침묵의 산!

추도사 - 김종남(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아산 선생님은 초년 기자시절 내 나이 30대에 처음 뵈었다. 그 이후 나의 멘토가 되었다. 선생님이나 제자로 여기신 게 아니다. 나 스스로 멘토로 모신 것이다. 만나 볼 때 마다 선생님의 헤어질 수 없는 깊은 불교와 노장사상, 험한 바위를 뚫고 뻗어 오른 노송 같은 선생님의 인덕에 경탄했다. 빠져들었다. 내 나이 40대 때 어느 날, 선생님은 ‘나이 들면 호가 필요할 것이다’ 사주를 따져 물으시더니, 몇 주후 ‘현동(玄童)’이란 호를 주셨다. ‘玄’은 먹을 뜻하는 검은 현자로 생각했었다. 답양 지실에 있었던 선생님 화실 이름도 묵노현(墨奴軒)이요, 제자들의 모임도 ‘먹의 노예가 되라’고 묵노회(墨奴會)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남종화의 완성자’라 불리는 선생님의 그림에는 유독 먹그림이 많다. 전지 몇 장짜리 대작들도 무채색에 검은 색 일변도 이기 일쑤이다. 선생님은 ‘검은 색이 가장 현란한 색’이라고 말씀하신다. ‘검은 색을 찬찬히 들여다보아라, 그 속에 수 백 수 천 가지 모든 색이 다 들어있지 않느냐’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찬탄하신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의 호에 대해서는 ‘玄은 검은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어리석다는 뜻도 있다. 어리석은 아이의 심정을 잃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필 어리석은 아이일까?’ 한창 팔팔하던 때 이해가 어려웠다. 그 말씀이 가슴에 닿기 시작한 것은 20여년이나 지난 후이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을 보는 ‘어리석은 아이의 경외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산(雅山)선생님의 호 ‘아(雅)’는 꼭 아름답다는 뜻만 있을까. 선생님은 호를 세 개 쓰셨다. 소설가 문순태는 ‘크고 아름다운 산, 雅山’에서 ‘아산선생의 첫 번째 호는 목포 8경중 하나인 아산(玉山)을 본떠 스스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야자를 뺀자로 바꿔 雅山으로, 50세 이후 서술이 퍼렇던 군사독재 시절에는 병어리 嘯자로 바꿔 嘯山을 쓰셨다.’고 밝힌다. 언론

인 손정연도 ‘아산 조방원 평전’에서 ‘1972년 10월유신 이후 아산선생님은 嘯山, 嘯龍洞主人, 嘯山人이란 호를 사용하며 병어리로 저향했다. 80년5월 이후에도 嘯山시대는 계속되었. 80년대 중반에는 대한민국예술회원으로 모시기 위한 시도도, 문화훈장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하셨다’고 회고한다.

몇 달 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았을 때,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큰 소리로 말씀드려야 했다. 그런데도 옛 제자와 지인들 예피 소드까지 세세히 기억하시며 이야기하신다. 순천서 찾아온 서예가들에게 화제가 일일이 嘯山이라고 싸인까지 해 주신다. 다시 嘯山이란 호도 쓰시구나!

헤어질 때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으셨다. 크고 두툼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게 마지막 땀이 될 줄이야. 곧지 않은 일에 타협할 줄 모르고 결어는 90여 성상, 울바르도 웅골찬 산, 큰 어른 雅山선생님이 가셨다. 이제 침묵의 산이 되신 것이다.

선생님! 그 따뜻한 손, 이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란하게 검은, 침묵의 병어리산’은 우리를 가슴속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하소서!

##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 킴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디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담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웅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총곡리 2차선 돌본 배 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력 유재 관

금히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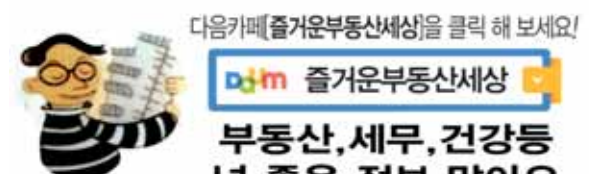
- 1)점포 : 갈비집7명,커피숍3명,슈퍼5명,카페3명대기중
- 2)주택/아파트 전월세 : 다수 대기중
- 3)상가빌딩,기동,모텔,펜션 : 금액대별 18명 현금대기중



급매합니다

- 1)영암 국도변 3면코너 [다이어 몬드 가든] 급매 4억3,000만원(1일매출100만원이상 대박집)
- 2)나주 가든빌딩 : 1,525㎡/ 별도 저수지 유료뉴시터 가능 총가 1억1,500만원
- 3)대인동 상업지 3.3㎡ 140만원 투자기차 엄정

상가점포, 사무실, 원룸, 투룸 임대매물도 많아요  
환송, 담양 등 터 좋은 아산, 농장 등도 있습니다



다음카툰(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 해 보세요!  
D+M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 세무, 건강 등  
넘 좋은 정보 많아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 / 직통062)229-0088

## 년6억 수익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른,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7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약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